

11-3-2024 주일 설교 메시지

금주의 묵상: 시편 91:1-16

본문 말씀: 갈라디야 5:16-24

말씀 제목: 육신의 일들을 하는 자들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에서 포로생활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처지에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회복하실 것인지에 대해 선지자 에스겔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손이 내게 임하시어 주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서, 뼈로 가득 찬 골짜기 가운데에 나를 세우시고, 나를 그 사면에 지나가게 하셨는데. 보라, 그 열린 골짜기에는 심히 많은 뼈가 있더라. 보라 그 뼈들이 심히 말랐더라.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인자야,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에 내가 대답하기를 ‘오 주 하나님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였더니 다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 뼈들에게 예언하여 그들에게 말하라. 오 너희 마른 뼈들아, 주의 말을 들으라. 주 하나님이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숨이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내가 너희 위에 힘줄을 놓고 너희 위에 살을 자라게 하고 피부로 덮고 너희에게 숨을 넣으리니 너희가 살리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리라.’ 하시니라.”(겔 37:1-6)

선지자 에스겔이 주의 말씀대로 예언하였을 때 즉시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명령을 받은 대로 예언하였도다. 내가 예언하였더니 소리가 나고, 보라 진동이 있고 뼈들이 모여들어 자기 뼈에 붙더라. 내가 보았더니, 보라, 힘줄과 살이 그 뼈들 위에 오르고 피부가 그 위를 덮었으나 그들 속에 숨이 없더라. 그때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바람에게 예언하라. 인자야, 예언하여 바람에게 말하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오 숨아, 네 바람으로부터 와서 이 살해된 자들 위에 숨을 넣어주어 그들로 살아나게 하라.’ 하시니라. 그래서 내가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예언하였더니 숨이 그들 속으로 들어갔고 그들이 살아나 그들의 발로 서니 심히 큰 군대더라. 그때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니라.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의 온 집이라. 보라,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은 사라졌으며 우리의 부분은 완전히 끊어졌도다.’ 하느니라.”(겔 37:7-11)

이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또 다시 예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예언하여 말하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오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들을 열어서 너희로 너희의 무덤들로부터 나오게 하여 너희를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 오리라. 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의 무덤들을 열어서 너희의 무덤들로부터 너희를 나오게 할 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며 내 영을 너희 안에 두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또 내가 너희를 너희의 본토에 두리니 그때에 너희는 나 주가 그것을 말하였고 수행한 줄 알리라. 주가 말하노라.”(겔 37:12-14)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 예언하게 하신 대로 오랫동안 온 세상에 흩어져 무덤속에 있는 마른 뼈들처럼 죽어 아무 소망이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무덤으로부터 나오게 하여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회복하시고 그들의 본토에 들어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때에 그들은 마치 마른 뼈들 위에 힘줄과 살이 오르고 피부가 살 위를 덮어 사람의 모습을 찾았던 것처럼 되었지만 아직 그들에게는 숨이 들어가지 않음으로 인해 마치 좀비처럼 사람의 육신의 모양만 보이는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아직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그들 안에 없음으로 인해 마치 그들은 죽은 죽어 있고 육신만 살아있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그들이 하나님의 영을 통해 완전히 회복될 때가 올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주가 말하노라. 그러나 이것이 내가 이스라엘 집과 더불어 맺을 언약이 되리니 그 날들 이후로 나는 내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 속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면 그들은 각기 자기 이웃과 각기 자기 형제에게 말하기를 ‘주를 알라.’고 더이상 가르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 모두가, 즉 그들 가운데 작은 자로부터 큰 자에 이르기까지 나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요, 내가 그들의 죄악을 용서할 것이며 그들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아니할 것임이라. 주가 말하노라.”(렘 31:33-34)

성령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 안에 두 종류의 사람들이 공존하고 있음에 대해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직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마치 마른 뼈들 위에 피부와 살과 힘줄만 붙어서 사람의 모습을 가졌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사람들과 하나님의 생명의 영을 받아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아직 거듭나지 않아 성령께서 내주하지 못한 사람들은 여전히 육신만으로 종교행위만 하면서 교회에 출석하지만 마치 좀비처럼 생명 없는 육신의 일만을 하고 있으며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고 증거했습니다:

“이제 육신의 일들은 분명히 나타나나니 곧 간음과 음행과 더러운 것과 음욕과 우상 숭배와 마술과 원수 맺음과 다툼과 질투와 분노와 투쟁과 분열과 이단들과 시기와 살인과 술 취함과 흥청거림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내가 전에

말한 바와 같이 미리 말하노니 그런 것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라.”(갈 5:19-21)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들이 맺는 열매에 대해서도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그러한 것을 반대할 법이 없느니라.”(갈 5:22-23)

사도 바울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에게 대하여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라고 증거했습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그 육신을 욕정과 정욕과 함께 십자가에 못박았느니라.”(갈 5:24)

사도 바울은 부활 즉, 휴거에 대하여 증거할 때에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 휴거될 것이라고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셔서 잠들었던 자들의 첫 열매들이 되셨느니라.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같이 죽은 자들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이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을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각자 자기의 서열대로 되리니 그리스도가 첫 열매들이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라.”(고전 15:20-23)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스스로 그 육신을 욕정과 정욕과 함께 십자가에 못박은 자들이라고 증거한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